

# “공인받을 수 있는 계란생산비가 있어야 한다”

우리가 흔히 「知彼知己면 百戰不殆라」는 손자 병법에 있는 고사를 말하곤 한다. 물론 전쟁론에서 생겨난 말이지만 이 고사가 갖는 의미는 포괄적인 것이어서 현재는 어느 분야에서든지 이 전쟁론이 적용될 만큼 일반화되어 있다.

사실 양계산업에서 지피(知彼)와 지기(知己)를 엄밀히 구분한다는 것은 현실 여건상 대단히 어렵고 애매하다. 그렇지만 양계산업이 어엿한 산업으로서의 한 위치를 차지한다고 자부를 하려면 적어도 양계산업이 누구와의 관계를 토대로 운영되고 있는 것쯤은 충분한 이해가 있어야 한다.

가장 기본적인 문제의 핵심을 어떻게 풀어갈 것인가를 결정하는 과정에서 매년 양계인들은 너무 독단적이고 이기적인 합리화를 서슴없이 자행하고 있다.

행정부와의 위상에서도 늘 보호와 약자 논리를 펴면서 무조건적인 배려를 요구 아닌 업살로 일관해 왔다고 스스로의 행위를 반성해야 한다.

그리고 지금 존속하는 농림수산부의 기능에 대해서도 대부분의 양계인들이 넓게 보지 못하고 편협한 시각에서만 보려고 하기 때문에 문제해결을 위해 부딪치게 되면 오히려 해결은 커녕 오히려 흑을 붙이는 경우가 허다하다.

왜 농림수산부를 농민만을 위한 행정부서로만 보는가? 이 부서의 기능은 농민, 그 중에 양계인만을

위해 만들어진 부서가 아님을 지금부터라도 깨달아야 한다. 엄밀히 농림수산부는 우리나라 전체 국민을 위해 식량의 원활한 조달을 위해 있는 부서인 것이다.

부분적으로 식량조달을 위해 마주치는 과정에서 계란 및 닭고기의 경우 양계인인 것이다. 소비자도 국민이고 양계인도 국민이기 때문에 사실상 농림수산부가 소비자를 외면하고 양계인만을 위한 행정을 해서도 안되고, 소비자를 위해서 양계인을 외면해서도 안되는 불편한 관계속에 존재하는 부서라는 것을 알아야 한다.

양계인은 이렇듯 너무 고질화된 사고방식을 탈피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농림수산부야말로 양계인만을 위한 대변기관이라고 믿으며 그렇기 때문에 무조건 양계인을 보호해야 한다고 외치고 있는 실정이다.

차체에 세계 동향은 자국의 자본이 무역거래시 타국으로 흘러들어가는, 즉 수출액보다 수입액이 많아지면 자국이 타국보다 경쟁에서 유리한 상품을 사도록 압력을 넣는 이른바 수입개방 정책을 강력히 추진하게 되면서 농림수산부는 행정부내에서 절충안에 따르게 되었고 양계인들은 농림수산부가 양계산업만을 위해 존재하는 줄로만 알았는데 제도적인 여건을 개선하지 않은 상태에서 수입개방을 결정함으로써 양계인을 무덤속에 밀어넣는 처사라고 반발을 하는 것이다.

지금까지 양계인은 싸움을 위해 적을 얼마만큼 이

'88년도 생산지 계란 고시가격 변동

월	일	특란	대란	중란	소란	경란
88년	4	44	37	34	32	26
	11	41	34	31	29	23
	15	38	31	28	26	20
	18	41	34	31	29	23
	23	44	38	35	33	27
2	11	41	35	32	30	24
	24	38	32	29	27	21
3	10	41	35	32	30	24
	21	44	38	35	33	27
4	16	47	40	38	36	30
	4	44	37	35	33	27
5	10	41	34	32	30	24
	14	38	31	29	27	21
	16	35	29	27	25	19
	2	37	32	30	38	24
6	8	40	35	33	31	25
	15	43	36	34	32	26
	21	45	36	34	32	26
	28	43	34	32	30	24
	1	38	29	27	25	19
7	8	36	27	25	23	17
	18	33	24	22	20	14
	25	35	26	22	20	14
	28	38	29	25	25	17
	29	41	32	28	26	20
	1	44	35	31	29	23
8	11	38	29	25	23	77
	19	41	31	27	25	19
	22	44	31	27	25	19
	25	47	32	28	26	20
	27	50	35	28	26	20
	31	53	38	31	29	23
9	3	56	41	34	32	26
	6	56	44	37	35	29
	9	59	47	40	38	32
	13	59	50	43	38	32

9	16	59	53	46	38	35
	17	59	53	46	41	32
	29	56	50	43	38	29
	30	53	47	40	35	29
10	5	30	44	40	35	29
	11	47	41	37	32	26
	22	44	38	34	29	23
	29	46	39	36	31	25
	5	48	41	38	34	28
11	12	50	44	42	38	32
	17	53	48	46	42	36
	22	55	51	49	45	39
12	12	57	54	52	48	42
'89.1	11	59	56	54	50	44
	19	62	59	57	53	47

해하고 있으며 나를 얼마만큼 이해하려고 노력하였는가 묻고 싶다.

요즈음 계란가격(생산지 출하가격 및 소비자가격)이 좋은게 사실이다. 88년 특란 최저가격이 35원으로 기록되어 있다. 89년 1월19일에 특란이 62원으로 무려 27원이 올라간 셈이다. 가격 진폭이 극과 극을 달리는 셈인데 여기에 하락세에 놓일 때마다 상인들의 농간이 대단하여 왕조시절 도적이 길가는 가마를 터는 격으로 침해왔다고 생산자들은 항변하고 있다.

이 문제로 생산자들은 경제기획원에 상인연합회의 담합을 근절시켜달라고 요구하기에 이르렀는데 오히려 상인들은 요즘 같이 계란이 생산량이 줄어 자기네가 아니었으면 계란값이 폭등하였을 것이라고 정부정책의 저물가시책에 호응하고 있다고 맞장구를 쳐 경제기획원에서 생산지가격이 70원(소비자가격 100원씩을 고려)이 넘게 되면 국내 물가상승에 미치는 요인을 감안하여 부득이 수입을 할 입장이라고 폭탄선언을 하기에 이르렀다.

여기에 사료가격인상에 따라 생산자들의 거센 반발이 표출되자 사료회사에서는 사료가격인상의 정당성을 내세우기 위하여 계란생산비를 대란기준 42원



으로 계산·발표하여 지금의 계란가격으로 보아도 이 정도의 사료가격인상은 적당하다고 근거를 제시하기에 이르렀다.

이에 생산자들은 터무니 없는 계란생산비라고 반발을 하고 있지만 대외적으로 공인을 받을 수 있는 계란생산비산출이 없어 그야말로 과학적인 근거로 반박을 하지 못하고 있다.

이것도 수입개방을 하지 않을 수 없는 입장에 처해있는 농림수산부나 아니면 상인들이 해줘야 하는가. 계란값을 적정하게 받기 위해서는 주어야 할 사람과 싸움아닌 싸움을 해야 함에도 양계인들은 싸움에서 적을 전혀 알지 못하고 맞서고 있는 격이다.

이제부터라도 양계인들은 어떠한 싸움에서라도 이기기 위해서는 우선 적을 알아야 하고 다음은 자기를 알아야 한다. 양계인들이 먹고 살기 위해 하고 있는 사업에서 자신들이 생산하는 계란이 생산비가 얼마인가는 알아야 한다.

주먹구구식으로 금고에 돈이 남으면 생산비 이상으로 값을 쳐 받은 것이고 금고에 남는게 없으면 생산비 이하로 받았다고 할 것인가. 적어도 생산비가 얼마인데 양계인들이 얼마 이상은 받아야 하고 소비자 가격이 높아 수입을 하겠다고 하면 제도적으로 생산비

가 낮아질 수 있는 요인을 개선하여 경쟁력을 갖게끔 만들어야 한다.

행정을 담당하는 실무자들이 양계산업을 머리부터 발끝까지 아는 것은 아니다. 어찌면 양계인보다 아는 것이 없을 수도 있다. 그들은 양계업이 아닌 전반적인 여건을 고려하여 양계산물수급을 위한 정책인 안만을 한다고 보아도 무리는 아닐 것이다.

정작 양계산업을 양계인들이 제일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그들로 하여금 양계산업을 이해하게끔 설득하고 구체적인 해결 방안을 만들어 놓고 협상에 임해야 얻는 것이 크리라고 본다.

계란생산비가 공식적으로 산출되지 않는한 양계인들은 싸움에서 총알 없는 빈 총만을 가지고 적을 잡겠다는 행위만을 반복하게 될 것이다.

일정 수준 이상이면 수입하겠다는 문체도 계란값이 높아지는데만 좋아할게 아니라 양계인 스스로가 모여 일정선에서 계란값을 동결하거나 생산조절을 통하여 함께 사는 양계산업이 되도록 힘을 발휘해야 한다.

그래서 성인들이 옛날부터 「知彼知己면 百戰不殆」라고 하였던 것이다. <김용화>

**양계**